

일본 정부 사료용 쌀 관련 정책

1 `15년산 사료용 쌀 취급확대를 위한 추진내용

□ 주식용 쌀의 수급 전망

○ `14년 7월 ~ `16년 6월의 주식용 쌀 등의 수급 전망

(단위:만톤)

항 목		생산수량
`14년 6월말 민간 재고량	A	220
`14년산 주식용 쌀 등 생산량	B	788
`14, 15년 주식용 쌀 등 공급량 계	$C = A+B$	1,008
`14, 15년 주식용 쌀 등 수요량	D	788
`15년 6월말 민간 재고량	$E = C-D$	230
`15년산 주식용 쌀 등 생산량 (전년의 생산수량 목표와의 비교)	F	751 (▲14만톤)
`15, 16년 주식용 쌀 등 수요 전망	G	770
`16년 6월말 민간 재고량(시산)	$H = E+F-G$	211

* F,G,H 는 생산수량 목표

○ 민간재고량과 상대거래가격의 추이



* 상대거래가격은 운진, 포장비, 소비세를 포함한 1등급 쌀의 가격이며, 해당 년도의 출시부터 다음 해 10월까지의 평균가격임

□ '15년산 사료용 쌀 확대를 위한 추진 상황

- '15년산 쌀의 수급균형 개선을 위하여 주식용 쌀에서 수요확대 가능성이 있는 사료용 쌀 등으로의 전환을 착실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14년에 정비한 사료용 쌀의 전국 추진시스템을 활용하여 '14년 가을, 겨울에 농림수산성, 지방농정국, 지역센터가 각 도도부현, 시촌마을의 관계기관에 동참 활동을 실시
- '15년 1월 이후 아래사항과 같이 세부적으로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15년산 쌀 적정 재배 관련 산지 방문 ('15년 1월~2월)

- JA그룹이 설정한 '15년산 사료용 쌀 생산 목표인 60만톤의 달성을 위하여 전중(중앙회), 전농이 중점 현(한국의 도에 해당)을 방문
- 농림수산성 생산국 농산부 농산기획과, 곡물과의 실장 및 지방정국·지역센터도 참석하여 적정재배 등에 관해서 의견교환 실시

○ 사료용 쌀 생산·이용 확대 심포지움 개최 ('15년 4월 15~16일)

- '15년 3월에 정부 각료회의로 결정된 “식료, 농업, 농촌 기본계획” 안에서 2025년 사료용 쌀 생산목표 110만톤 달성을 위하여 ‘사료용 쌀 생산·이용 확대 심포지움’을 농림수산성에서 개최
- 사료용 쌀의 생산으로부터 소비까지 폭 넓은 관계자의 이해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하야시 농림수산대신(장관)을 비롯하여 생산자, 소비자, 관계기업, 도도후현 및 시험연구기관 등 총 900여명 참가

○ 사료용 쌀 추진 캐러밴 ('15년 4월~)

- 전국의 주요 쌀 산지에서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에 농림수산성 담당 관리자가 주요 쌀 산지 소재의 JA 간부와 사료용 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 설명 및 과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실시

【주요홍보내용】 ①“식료, 농업, 농촌 기본계획”에서의 사료용 쌀 생산확대의 입지
②사료용 쌀 대처에 대한 각종 지원책 ③미국 공급·수요확대 지원 사업 ④쌀의 안정거래연구회의 보고서

* 4월~5월중순까지에 홋카이도, 동북지방, 관동지역 등 18현에서 실시

□ 수전(논)활용 직접지불교부금 : 277,026백만엔

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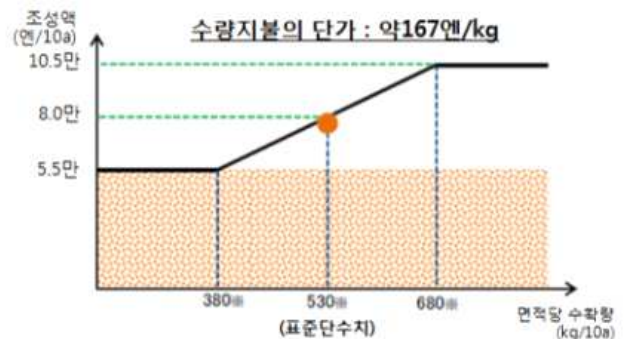
-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의 생산 확대
- 보리, 대두 등의 재배 면적 확대
- 사료 자급률의 향상

○ 지원내용

① 전략작물 조성

대상작물	교부단가
보리, 대두, 사료작물	3.5만엔/10a
WCS용 벼	8.0만엔/10a
가공용 쌀	2.0만엔/10a
사료용쌀 쌀가루용쌀	수확량에 따라 5.5만엔~10.5만엔/10a

〈사료용쌀, 쌀가루용쌀의 교부단가 이미지〉



수확지불에 따른 조성은 농산물검사기관에 따른 수확확인을 받은 것이 조건임
※는 전국 평균의 평년단수(표준단수)를 바탕으로 한 수치며 각지역에의 적용에 있어
시존마을 등이 당해지역에 따라 정한 단수(배분단수)를 적용

② 이모작 조성 : 1.5만엔/10a

- 주식용 쌀과 전략작물 조성의 대상 작물, 혹은 전략작물 조성의 대상 작물끼리의 이모작을 지원

재배 예	교부금엔(10a당)
주식용 쌀 + 보리	쌀의 직접지불 + 1.5만엔
보리 + 대두	3.5만엔+ 1.5만엔
사료용 쌀 + 보리	5.5~10.5만엔 + 1.5만엔
쌀가루용 쌀 + 사료용 쌀	5.5~10.5만엔 + 1.5만엔

③ 경축(경작+축산) 연계 조성 : 1.3만엔/10a

- 사료용 쌀의 쪼 이용, 수전(논) 방목, 자원순환의 대처를 지원

④ 산지교부금

- 지역 작물진흥의 설계도가 되는 ‘수전 Full 활용 비전’에 의거, 고부가가치화나 저비용화를 도모하면서 지역의 특색이 있고 매력적인 품목의 산지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재량으로 활용가능한 산지교부금을, 보리, 대두를 포함한 산지 만들기를 위한 노력에 지원
- 도도부현에서는 지역의 대처 및 노력에 따라 추가 배분 실시

대상 작물	주요내용	추가 배분 단가
사료용 쌀 , 쌀가루용 쌀	다수성(多收性) 전문품종	1.2만엔/10a
가공용 쌀	복수년 계약(3년간)	1.2만엔/10a
비축쌀	‘15년산 정부 비축쌀의 입찰 낙찰	0.75만엔/10a
메밀, 유채	재배	(기간작) 20만엔/a (이모작) 15만엔/a

□ 산지활성화 종합 대책사업 : 3,211백만엔

대책의 포인트

산지의 활성화를 위해 ‘장점’이 있는 산지형성, 스마트농업 등에 있어 생산·유통 시스템의 고도화 등 생산현장에서의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

○ 주요내용

- ① 신품종·신기술 활용형 산지육성 지원 사업
- ② 생산시스템 핵심 추진 사업
- ③ 약용작물 등 지역 특산작물 산지 확립 지원 사업
- ④ 청과물류시스템 고도화 사업
- ⑤ 국산 화훼 이노베이션 추진 사업

⑥ 산지 수익력 증강 지원 사업

- 수전의 Full 활용을 위해 사료용 쌀의 생산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다수성 품종이나 직파재배 등의 도입 실증, 대두·보리 등의 생산확대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생산기술의 도입실증, 양봉진흥 등을 지원

⑦ 농축산업 기계 등 렌탈 지원 사업

⑧ 이구사(다다미 재료), 다다미 농가 경영소득 안정화 대책 사업

□ 자급 사료의 생산 확대 : 25,248백만엔

정책 목표

- 사료 자급률의 향상
- 낙농경영에서의 사료 재배면적의 확대

○ 주요내용

① 사료증산 종합대책 사업

② 사료 생산형 낙농 경영지원 사업

③ 사료용 쌀 이용 확대를 위한 축산기계 리스사업 <신규>

- 축산농가가 실시하는 사료용 쌀의 보관·가공에 필요한 기계의 리스정비를 지원
- 예산 : 5,938백만엔
- 보조률 : 1/2 또는 1/3
- 사업실시 주체 : 민간단체 등

④ 배합사료 공급 체제정비 촉진 사업 <신규>

- 사료용 쌀을 활용한 배합 사료의 저비용 및 안정적인 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료용 쌀 산지관계자와 배합사료공장 관계자가 연계하여 실시하는 계획책정, 유통실증 및 시설정비 지원
- 예산 : 365백만엔
- 보조률 : 1/2 또는 1/3
- 사업실시 주체 : 민간단체

⑤ 초지 축산기반 정비 사업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참고: 일본농업신문 6.5】

‘15년산 사료용 쌀 재배 확대 불가결

일본 농림수산성은 6월 4일, 2015년산의 사료용 쌀 증산을 위해 도도부현의 담당 과장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생산량은 ‘14년산 2배 수준에 달할 전망이나, 주식용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료용 쌀의 재배 확대가 필수적이다. 생산량에 대한 정부 신청 기한은 7월말까지로 남은 약 2개월간 생산현장에서의 움직임을 강화하도록 호소했다.

농림성의 5월 15일 현재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사료용 쌀 생산량은 35만톤으로 ‘14년도 실적 (18만톤)의 약 2배 수준으로 주식용 쌀 수급 안정의 열쇠를 쥐는 사료용 쌀로의 전환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JA 그룹이 내세우는 목표(60만톤)와는 차이가 있으며, 보다 많은 생산량 확대를 위해 국가에의 ‘신규 수요 쌀 대응 계획서의’ 정부제출 기한도 7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했다. 나머지 약 2개월간에 아직 사료용 쌀로 전환 여지가 있는 중점 현을 중심으로 JA그룹과 함께 움직인다.

이날 회의에는 도도부현의 담당 과장 등 약 150 명이 참석했다. 농림성 생산국 마츠시마 국장은 현재의 35만톤 수준은 주식용 쌀 수급 안정에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으며, 현장에서의 대화를 통해 수요에 따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15년산 쌀 관련해서는 쌀값을 좌우하는 민간재고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사료용 쌀을 중심으로 한 비주식용 쌀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주식용 쌀의 생산량을 크게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